

KIPO NEWS

한-프랑스 지식재산 외교 출범

특허청이 프랑스 특허청과 지식재산 분야 외교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 사업을 개시한다.

특허청은, 이수원 특허청장과 이브 라삐에르(Yves Lapierre) 프랑스 특허청장이(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지난 9월 9일(금) 오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청장회담을 열고, 양청 간 외교 채널 구축 및 심사관 교류를 통한 지식재산권 심사 노하우 공유, 한의학에 관한 전통지식 보호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 청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출범 1년 성과 및 과제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지난 1년 동안 위조상품 사범 총 141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48,000여 점(정품

가액 약 12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실적은 특사경 도입 이전('10.1~8)과 비교하면, 월평균 실적 기준으로 형사입건 인원은 약 6배, 압수물품은 약 11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게 검거실적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위조상품 전문 수사기관인 특사경 출범을 계기로 검·경과의 합동단속에 의존하지 않고 특허청 독자적으로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적발된 범죄유형으로는 도·소매사범 105명, 온라인 판매사범 24명, 제조사범 7명, 유통사범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압수된 위조상품에 대한 분석결과, 품목별로는 장신구류 6,618점, 의류 5,583점, 가방류 5,411점, 신발류 1,272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 8,702점, 폴로 6,085점, MCM 4,653점, 샤넬 4,651점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특사경 출범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위조상품 거래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유통경로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수·1박2일·해피투게더 등 인기 있는 예능프로의 명칭, 상표출원 봇물!

최근 MBC, KBS, SBS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 "남자의 자격", "1박 2일", "무한도전", "해피투게더" 등 예능프로의 명칭을 단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기 있는 예능프로의 명칭에 대한 출원건수는 2007년 38건, 2008년 45건, 2009년 46건, 2010년 49건에 이어 2011년 7월말 현재, 6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나는 가수다"를 변형하여 "나는 ADSL", "나는 여자다", "나는 미래대!", "나는 꽃" 등과 같이 "나는"과 결합된 표장의 상표출원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능프로그램의 명칭별 출원현황을 보면, "나는 가수다"와 "나는" 결합표장이 93건을 출원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1박2일" 결합표장 68건, "해피투게더" 결합표장이 58건, "무한도전" 결합표장이 52건을 출원하여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출원인별로는 총 316건 중 개인이 160건(50.6%), 법인이 156건(49.4%)을 출원하여 개인과 법인이 비슷하게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기 있는 예능프로의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흥행에 성공한 예능프로의 제작사에서 타인의 상표권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한 경우와 인기 있는 예능프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선점하기 위한 개인 및 법인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도 한류열풍을 몰고 온 KBS의 드라마 “겨울연가”와 “황진이”, MBC의 “대장금”과 “주몽”, SBS의 “파리의 연인”, “꽃보다 남자” 등 인기 있는 드라마 제목을 상표로 출원하여 보호받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 있는 예능프로의 명칭이나 TV 드라마 명칭의 상표출원 및 등록은 브랜드 네이밍의 한 트렌드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러한 예능프로그램의 명칭에 대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과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특허를 찾고 계시나요?

특허청은 대민용 특허정보검색서비스¹⁾(KIPIRS)에서 제공하는 해외 특허 정보 범위를 기존 8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IPRIS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등 8개 주요국의 특허정보와 함께 4개국(캐나다, 호주, 대만, 러시아) 특허정보도 추가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내부 심사관용 특허정보검색 서비스는 이미 12개국의 해외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대민용 KIPRIS는 8개국 특허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해외정보 확대가 필요하였다.

이번 제공범위 확대를 계기로 일반인도 KIPRIS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뢰성 있는 특허정보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IPRIS의 해외특허 검색서비스에 출원일자, 등록일자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일자통합검색’과 발명자, 출원인 등에 대한 ‘인명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검색 편의를 높였다.

KIPRIS 해외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는 2003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검색횟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특허정보를 사용자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인 KIPRIS^{plus}가 제공되면서 해외특허 정보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KIPRIS 이용이 증가하더라도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용량을 확대하고 해외특허 제공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KIPRIS 해외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건수

(단위: 건)

구분	탐색기간	건수	제공내용
일본	'76~	8,819,859	전문
미국	'76~	5,804,112	전문
EP	'78~	2,548,659	전문
WO	'78~	1,891,784	전문
중국	'85~	3,432,949	초록(영문)
독일	'74~	6,922,472	전문
프랑스	'74~	2,985,942	전문
영국	'91~	224,376	전문
캐나다	'99~	622,399	전문
호주	'98~	755,216	초록
대만	'91~	396,316	초록(영문)
러시아	'74~	602,773	초록(영문)

¹⁾ 데이터는 2011. 7월말 기준임. 붉은색 점선부분은 '11년도 확대 제공 대상
^{*} 전문: 서지+요약+청구범위+명세서 등 문서 전체, 초록: 서지+요약
^{**} WO: WIPO의 PCT 공보

1) 대국민 특허검색서비스(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rvice: KIPRIS): 2010년 한 해 동안 약 2,800만의 검색건수를 자랑하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무료 특허 검색사이트(www.kipris.or.kr)로서, 국민들이 자신의 특허 출원에 앞서, 다른 사람이 이미 출원한 특허들을 직접 찾아보거나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관련 기술들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특허청